

무안갯벌, 한국 넘어 세계로 향한다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 위한 주민 설명회 가져 5개 면에 광범위하게 분포...생태 자연환경 잘 보존



최근 전남 무안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보성·순천 등 5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1차 등재를 완료했고 전남 무안·고흥, 경기 화성, 충남 아산·당진 등 5개 지역이 2단계 등재를 추진 중이다.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무안군은 5개 면에 걸쳐 갯벌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으며, 생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해저면과 인접한 함해만 일대는 2001년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2008년 탐사르습지 등록, 도립공원 지정 등으로 이미 그 가치가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무안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2일 해저면에서 무안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전남도청,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단계 세계유산 참여 시군, 해저면 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설명회는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효과 등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진행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문경오 사무국장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 민족 등을 초월해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입증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최고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무안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들께서도 높은 자긍심을 느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예로부터 갯벌은 우리 삶의 보고이며 생활의 터전이다"며 "우리지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보호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명호 문화체육관광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저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무안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5월 세계유산 2단계 확대 추진 참여의사를 밝히고 12월 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무안갯벌을 세계에 알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번영회,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캠페인 함평 최초 50여개 사회단체 참여...약 2km를 도보로 이동

함평군 번영회(회장 오민수)는 다가오는 6.1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일 10시 함평자동차극장에서 50여개 사회단체가 모여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를 주최/주관한 함평군번영회 오민수 회장은 "6월 1일 실시되는 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

작으로 한차원 높은 수준의 선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이번에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캠페인은 함평군 역사상 대규모로 이뤄진 최초 행사로 기록된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단순한 결의대회로 끝나지 않았다. 노병성 함평읍번영회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던 후 참석한 300여명의 군민들은 함평자동차극장을 출발하여 함평천지 전통시장을 거쳐 함평군청 그리고 다시 자동차극장 주차장을 도보로 이동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모 이통장연합회장은 "선거문화를 바꿔야 함평이 산다"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약 2km 직접 걸어가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캠페인을 실천했다"며 "함평군민들과 출마자들에게도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문화' 구호를 가슴에 새겨주는 데 중분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기자

영암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은 단체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가 영암군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여행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

전 계획서, 여행일정표 등을 여행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신청서와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gam.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영암군은 "단체 관광객인센티브 지원을 점차 확대 지원하여 영암군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겠다"라며 "적극적인 관광객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악취 zero

주민 휴식·레저 스포츠 공간 변신

영광군은 상하수도사업소 악취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 신청한 2021년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3억을 확보, 2021년 8월에 착수하여 2022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영광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하수 최대 7,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처리구역은 영광읍 관내이다.

이번 사업은 악취기술진단 결과 악취 발생원인으로 지적된 생물 반응조(정화시설)에 덮개 및 탈취 설비를 설치하여 동절기 미생물 활성화와 악취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향상하고 방류수 수질이 개선될 전망



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해온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사업과 "주민이 쉬어가는 힐링공간 조성" 사업이 이번 악취개선사업을 통하여 한층 더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친화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발로 뛰는 '목포애 주소갓기'운동 적극 전개

목포시가 22만 인구 회복을 위해 '목포애(애) 주소갓기'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출산 감소와 타지역 이주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소재 기관(기업)과 범시민을 대상으로 '목포애 주소갓기' 운동을 확산하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유관기관, 기업, 학교 등을 방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목포에 주소를 두지 않는 근로자·시민에게 분야별 각종 혜택과 다양한 전입 지원 시책 등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 전입을 환영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주에게는 목포사랑상품권과 전입축하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 목포에 전입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60만

원을 3회 분할해 지원하고, 인구 유인을 적극 실현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에는 전입 인원 기준에 따라 전입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입 청년(18~39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목포사랑상품권 지급과 전입환영 꾸러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일자리 창출을 인구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삼고 미래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문화 등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증가와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와 함께 인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목포애 주소갓기 운동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